

전남교육청, 학생 주도형 미래도전 프로젝트 추진

학생 3인 이상 팀단위 건강증진·국제교류·모험탐사·문화예술·자원봉사·진로활동 계획 공모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총 500팀 선정... 팀당 국내 500만·국외 2천만원까지 지원
전문가 지원·안전 대책 별도 수립... 선상무지개학교·히말라야학교 등 소수 위한 행사 폐지

전남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팀을 꾸려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대규모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학생들이 제출한 직업체험·국내외 교류·봉사활동 등 미래도전 프로젝트 기획안은 선정 심사를 거쳐 팀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학생 주도형 체험 프로젝트라는 점이 새롭다. 전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학생들이 멘토 교사·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기획·예산서를 작성해 교육·연수·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장석용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3~10명으로 구성된 500팀(국내 475팀·국외 25팀)에는 모두 28억원 가량 지원된다. 국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에는 최대 500만원, 국외팀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도전 프로젝트 참가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건강증진·과학정보·교류·모험탐사·문화예술·자원봉사·진로체험 활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대신 기존부터 해오던 선상 무지개 학교, 울곡 통일 리더스쿨, 히말라야 희망학교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프로젝트는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전남 청소년에게 꿈과 모험심을 길러준다는 긍정평가도 있었지만 '소수 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산이 쏟아진다', '교육청 주도형으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 심사를 거쳐 참가팀을 선정한다. 팀 선발 심사에는 학생 자발적 참여 여부, 활동 내용의 창의성 및 참신성, 일정기간 활동의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연계성,

팀 구성의 다양성, 예산 활용의 적정성 등이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팀 선발이 마무리 되면 3월 사전 워크숍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4~12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은 안전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별도의 보험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성에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기간 실행·평가·성찰하는 과정에서 협동심, 자존감,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기관 평정 91.23점을 받으며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민원행정제도 운영 전반과 민원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평가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기관장의 민원에 대한 의지 및 관심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기관 평정 91.23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평정(85.69)보다 5.54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역문제·청년문제, 청년들이 해법 제시

조선대 LINC+사업단 '조선대청년정책네트워크 포럼' 개최

조선대가 지역 문제와 청년문제를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루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조선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김재형) LINC+사업단(단장 김춘성)은 최근 광주 시 I-PLEX스타트업빌에서 '조선대학교 청년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선대 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청년·청년단체들의 지역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관계자 및 광주광역시 23개 지역청년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지역(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포럼운영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까지 포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역(청년)문제해결 및 사회공헌,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지역(청년)문제해결 및 사회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교육 분야 협력 ▲창업,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등 지역 현안 관련 공동협력 ▲포럼 운영을 통한 현안 발굴 및 운영,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또한 이날 청년정책네트워크 포럼에서는 부기철 교수의 '지역청년 문제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단체 대표들은 ▲협약한 고용구조로 인한 고용의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 ▲청년의 교육훈련 역량과 기

업의 현실 수요 역량 간의 간극 문제 ▲청년들의 사회적 빈곤으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 ▲청년들의 자립기반 축소로 심리적 고립감 확산 ▲청년들의 사회적 역할 유예에 따른 단절 문제 ▲지역사회 경제 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역 탈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향후 포럼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춘성 조선대 산학협력담당장 겸 LINC+사업단장은 "이 포럼이 우리 지역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자리가 되었고, 앞으로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유의 장으로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마음나눔 양궁체험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봉사센터는 최근 아동복지시설 금성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음나눔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금성원 어린이들이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지하에 위치한 양궁장에서 양궁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전남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 들어선다

올 3월 새학기부터

올 3월 새학기부터 전남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센터당 10~17명의 인력이 학교폭력 처리지원, 계약직 교직원 채용 등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해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전남도교육청 지난 17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범 지역은 도시형 4청(목포, 여수, 순천, 광양), 도농복합형 2청(나주, 무안), 농촌형 2청(고흥, 해남), 도서벽지형 2청(곡성, 진도)으로 총 10개 교육지원청이다. 곡성·진도 등 도서벽지형 2개청은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 각 1팀을 신설한다. 학교지원센터는 도시형의 경우 17명, 도농복합형은 15명, 농촌형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 처리지원, 방과후학교 강사채용, 학교

기간제 교직원 채용 등 학교 행정지원이다. 도교육청은 6~1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석용 전남도 교육감은 "학교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면서도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여 교사들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신대 방사선학과, 방사선사 국시 100% 합격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가 제46회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이 지난해 말 시행한 이번 방사선사 국가시험에는 전국적으로 2548명이 응시한 가운데 2031명이 합격해 평균합격률이 79.7%였다.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는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0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함으로써 위상을 높였다. 특히 최근 2개월 사이에 졸업생 등 12명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 정규직으로 취업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재복 방사선학과장은 "집중케어프로그램, 전공 멘토멘티제도, 스터디지정교수제도, 그룹스터디, 동신반딧불프로그램, 국가시험 전용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교수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학교, 4개 계열 19개 학과 편입생 선발

동강대는 오는 2월8일까지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예체능 등 4개 계열 19개 학과에서 2019학년도 편입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편입생은 2학년으로 ▲공학계열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전공, 전기전자과, 기계자동화과, 소방안전과, 드론과 ▲자연과학계열 보건행정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재활보건관리과(이상 3년제), 호텔조리영양학부 ▲예체능계열 뷰티미용과, 사회체육과 △인문사회계열 경찰경호과, 부사관과, 세무회계과, 토지정보관리과, 호텔관광과, 유아교육과(3년제) 등이다. 이번 편입생 선발은 전적대학성적 100%를 적용하고 부사관과의 경우 전적대학성적(60%)과 면접(40%) 점수로 합격자를 뽑을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2월18일이다. 원서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동강대 입학처(062-520-2555)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